

# “올해는 100%...내년에 다시 도전”

‘쉽없는 도전’ 시니어 메이저 우승 이룬 최경주

### 중·장년층에 동기부여·젊은 세대에 자극 줘 ‘뿌듯’ “내년 500경기 출전, 700경기 목표 계속 전진할 것”

“한국 골프의 전설” 최경주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완도에서 역대 선수를 하던 그는 골프 선수의 꿈을 안고 상경했고 남들이 말리던 미국에 진출해 ‘꿈의 무대’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8승을 거뒀다.

2011년에 달성한 PGA 투어 8승은 올해 2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9승째를 거두기 전까지 아시아 선수 최다승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정도로 독보적이었다.

올해 54세인 그에게 ‘도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안 어울릴 것 같았지만 최경주는 올해 5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웠고, 7월에는 메이저 시니어 대회인 더 시니어오픈을 제패했다.

2024시즌 공식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일 귀국한 최경주를 13일 최경주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두 차례 큰 우승을 달성한 2024시즌을 돌아보며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연초에 ‘올해 이런 성과를 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내용의 100%가 맞아떨어진 한 해”라고 자랑하며 “광장히 감사한 시즌이고, 또 내년이 기대되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경쟁하는 PGA 챔피언스투어에서도 상급 순위 10위를 목표로 세 위 116만1

천257달러·약 22억원)에 올랐다는 것이다.

최경주는 “2007년에 메모리얼 토너먼트와 AT&T 내셔널에서 우승했을 때가 정규 투어에서 제 선수 생활의 하이라이트”라며 “그런데 제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가치로 따지면 올해 비중이 더 큰 것 같다”고 비교했다.

그는 “제 나이에 SK텔레콤오픈 우승을 한 것이 저와 비슷한 나이분들에게 동기 부여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골프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더 관리도 잘하고, 분발해야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자극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7월 유서 깊은 영국 커누스티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더 시니어오픈에서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두 자릿수 언더파로 우승해 강렬한 발자국을 새겼다.

2008년 설립한 최경주재단도 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다. 골프 선수로 이를 것은 다 이룬 최경주지만 아직도 도전할 것이 남아 있다.

먼저 PGA 투어 500경기 출전이 다. 이 기록에는 2개 대회가 남았고, 올해 더 시니어오픈 우승으로 2025년 디오픈 출전권을 획득해 1개 대회만 더 나가면 500회를 채울 수 있다. 현재 700개 대회를 나간 선수들



올해 K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 세운 최경주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최경주재단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역대 최다 대회 출전 상위 10위권 정도에 해당한다.

최경주는 “투어에서 500회 출전부터 기념상을 준다”고 설명했다.

골프 명예의 전당도 장기적으로 최경주가 도전하고 싶은 목표 가운데 하나다.

최경주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리’는 뜻의 ‘고’(Go)다”라며 “가려면 움직여야 하고, 발로 뛰어야 하는데 나

도 완도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젊은 세대의 도전을 독려했다.

그는 “항상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게 된다”며 “일단 움직여보면 거기서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생각도 바뀌는 법”이라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앞으로 가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 광주FC, ‘오버더피치’ 콜라보 신규 라이프스타일 의류 출시

오늘 오후 7시부터 판매

프로축구 K리그 광주FC가 국내 스포츠 크리에이티브 브랜드 ‘오버더피치’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의류를 출시한다.

광주는 15일 오후 7시부터 구단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오버더피치와 협업해 출시한 신규 의류 3종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신규 의류는 축구 유니폼을 일상복으로 입는 블록코어룩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라이프스타일 의류 컨셉으로 제작됐으며 ▲레트로 유니폼(홈·어웨이) ▲후드티 ▲피스텍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레트로 유니폼은 구단의 창단 첫해 유니폼을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제작되며 오랜 시간 구단을 응원해 온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광주의 상징인 ‘빛’을 형상화한 패턴을 적용해 구단의 정체성을 나타냈으며, 클래식한 목선 디자인으로 북고풍 유니폼에 패셔너블한 매력까지 더했다. /박희중기자



광주FC 레트로 유니폼(홈·어웨이) /광주FC 제공

검은색 바탕에 구단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후드티와 피스텍 또한 일상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돼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라이프스타일 의류라는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이번 신규 의류를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팬들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지난 13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행사 모습.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제공>

## 장애 넘어 스포츠로 하나되다

제3회 광산구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행사 ‘성료’

‘제3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대회가 지난 13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및 하남그린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역내 16개 장애인 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가해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 진행됐다.

특히 내년 서봉파크장애인골프장이 완공을 앞두고 이벤트 대회로 파크골프 대회가 함께 치러져 주목을 받았다.

또 어려운 장애인시설 등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꽃화환 대신 쌀 기부 행사를 펼쳐 100여명이 쌀 나눔 기부행사에 동참했다. 20개 이상 지역 기업인들이 내놓은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열려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체육대회는 상생, 혁신, 소통, 화합 4

개팀으로 나눠 파도타기, 공굴리기 등 팀대항전과 훌라후프, 낙하산 필치기, 릴레이 계주 등 기관 대항전 그리고 휠체어 경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체육대회 종합 1위는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위는 혜화장애인주간보호센터, 3위는 소남군사회적협동조합이 차지했다.

파크골프 단체전 1위는 백희자·박종현 선수, 2위는 전승룡·홍기환 선수, 3위는 김정중·이향욱 선수가 차지했다.

양요열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인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화합하고 즐기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 기쁘다”며 “모두가 하나가 돼 신명나게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 “재계약 대신 1년 추가 동행 결정?”

유럽 이적시장 소식통 “토틸름, 손흥민 1년 계약 연장 절차”

토틸름 홉스퍼(잉글랜드)가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추가 동행”을 결정, 구체적인 계약 연장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 이적시장에 정통한 경로 알려진 언론인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틸름이 손흥민과 계약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하는 계약 조항을 발동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최소한(기존 계약보다) 한 시즌 더 토틸름과 동행한다”고 덧붙였다.

토틸름은 손흥민과 2021년 7월 마지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4년 계약을 맺은 양측의 동행은 2025년에 끝난다.

다만 토틸름이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노에 따르면 토틸름은 당장 손흥민과 새 계약을 맺기보다는 기존 옵션을 발동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토틸름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는 사실

만 알리면 된다. 토틸름과 손흥민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2천200만 파운드(약 393억원)의 이적료로 토틸름과 5년 계약을 맺던 손흥민은 2018년 7월 재계약으로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을 늘렸고 2021년 7월 두 번째 재계약을 하면서 2025년까지 될 예정이었다.

2024-2025시즌을 마지막으로 손흥민과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팬들은 재계약 여부에 관심을 쏟았지만, 토틸름은 침묵을 지켜왔다.

2023-2024시즌 도중 일부 현지 매체는 토틸름이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다는 관측을 꾸준히 꺼냈지만 결국 구단의 선택이 1년 계약 연장 옵션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32살에 접어들어 가운데 에이징커브를 고려해야 하는 토틸름에 부담스러운 장기 재계약보다 옵션 행사가 현실적 선택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새 계약 체결 시 팀 내 최고 수준인 손흥민의

주급도 인상될 여지가 크다.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연봉 분석 매체인 스포트 트랙에 따르면 손흥민은 주급으로 19만파운드(3억3천만원)를 챙긴다. 팀 내 1위다.

이렇게 되면 구단로서는 다음 계약 기간 중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손흥민에게 거액을 써야 하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1년 연장 옵션을 쓴다면 2026년까지 동행이 보장된 데다 새 계약을 맺을 때보다 주급 변동 폭을 통제할 수 있어 구단에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 KOVO, V리그 20년 돌아보는 ‘추억의 물품 수집’

한국배구연맹(KOVO)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의 V리그를 추억할 수 있는 물품들을 수집·공개한다.

KOVO는 14일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팬들께서 소중한 추억을 V리그 관련 물품을 수집한다”며 “물품은 이미지, 사연과 함께 온라인(https://naver.me/FvEJqWgy)으로 신청받

은 후 심사를 거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품이 선정된 팬들에게는 팀 코보 캐릭터 피규어 또는 울스타전 티켓, 기프티콘, 20주년 기념 도서 등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전했다.

연맹은 선정된 물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개한 후 다시 팬들에게 돌려준다. /연합뉴스